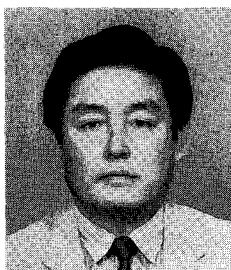


시설 수준에 맞는 사양관리 필요



이 상 진

(축산기술연구소 대전지소장/농학박사)

우 리나라 양계산업은 최근 수년동안 축산시설 개선사업, 양계단지 조성사업, 양계 계열화사업 등으로 인해 질적·양적인 면에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사육 규모는 점차 전·기업화되고 외국의 첨단시설을 도입하여 시설현대화 된 양계농가가 엄청나게 늘었다. 그러나 하드웨어의 발전에 비해 소프트웨어는 이를 뒷받침하지 못하고 있다. 다시 말해 시설규모화 및 현대화에 비해 사양관리체계는 개선됨이 없이 옛날방식을 그대로 답습함에 따라 생산성이 떨어지고 인건비를 제외한 거의 모든 비용이 증가하여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도산하는 사례를 주위에서 흔히 볼 수 있었다.

다행히 최근 몇 개월은 양계산물 가격이

높게 형성되어 숨통을 틀 수 있으나, 그 이전까지만하더라도 장기간에 걸친 낮은 양계산물 가격으로 우리 양계산업이 얼마나 어려웠던가? 특히 많은 투자를 하고도 생산성이 낮은 농가는 거의 자포자기한 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남의 얘기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 양계산업이 과연 이대로 가도 좋은가? 무역장벽의 철폐와 함께 물밀듯이 수입되는 외국의 양계산물에 아무런 대책없이 당하고만 있어야 하는가? IMF는 극복했다고 하나, 국가경제가 어렵고 우리나라민의 소비생활이 어려운데도 신토불이에만 호소 할 것인가?

우리도 이제는 경쟁력을 확보해야 할 때다. 말로만 경쟁력 제고를 외칠게 아니라 실질적인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여러분야에서 노력하고 개선해야 하겠으나, 필자는 규모화 현대화 된 시설에서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양체계 재정립과 관련하여 몇 가지 언급하고자 한다.

1. 농장의 실정에 맞는 계획수립이 필요하다

새삼 강조할 필요도 없는 말이지만, 과연



들다.

최근 몇 년간의 일이지만 각종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보상문제에 대해 민원회신 또는 컨설팅한 경우가 매우 많다. 그러나 하나같이 관리기록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 농장은 없었다. 그렇게 하고서도 발전할 수가 있겠는가? 이제 주먹구구식은 정말 곤란하다.

우리 양계농가에서 농장의 경영계획, 계군의 관리계획 등에 대해 사전에 철저히 계획 수립하는 농가가 몇이나 되는가? 막연한 계획 수립보다는 지난 계군의 실패 또는 성공사례 분석, 최근 1년 또는 몇 년간의 경영분석 등을 토대로 개선기술을 접목한 계획수립을 해야 할 것이다.

2. 계획대로 실천하고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한다

흔히 계획은 그럴싸하게 수립하고도 실천은 용두사미가 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수립된 계획의 수정보완이 필요할 때도 있다. 그러나 계획의 수정보완, 계획의 실천, 결과의 정밀분석, 분석결과를 토대로한 새로운 계획 수립 등을 위해서는 기록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다. 전부는 아니지만 대부분의 농가에서 간단한 사양관리 기록조차도 찾아보기 힘

3. 좋은 품종, 좋은 병아리의 확보가 우선되어야 한다

병아리의 능력은 천차만별이다. 모든 농사는 좋은 종자를 확보해야 풍년을 기약할 수 있다. 아무리 좋은 시설에서 열심히 관리해도 병아리가 나쁘면 결과는 보나마나 아니겠는가.

좋은 품종을 확보하고 위생적인 종계관리를 하는 부화장에서 계군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부화장, 종계장에서는 좋은 병아리를 공급할 자세가 되어 있어야 공생공존하지 않겠는가?

4. 사료의 품질이 생산성을 좌우한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쉽게 설명하면 옛날 우리조상, 조부모님,

부모님은 키가 작고 요즘 청소년들은 왜 키가 큰가?

물론 설명이 필요 없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좋은 병아리를 확보해도 사료가 나쁘면 생산능력을 발휘할 수 없다. 최근에는 사료의 품질이 많이 좋아졌으나, IMF 초기인 1998년초에는 원료사료 확보가 곤란하여 사료품질문제로 사료회사와 양축가 사이에 많은 분쟁이 있었던 것을 기억할 수 있다. 물론 일반적인 사료품질도 중요하지만 우리농장의 시설환경에 맞는 사료의 선택도 중요하다. 무창계사와 개방계사에 동일한 사료를 급여하면 영양소별로 과잉 또는 부족하게 된다.

또한 사료의 품질은 생산물의 품질과도 직결된다. 계란의 중량, 내부품질 및 난각상태, 닭고기의 품질은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 달라지나 근본적으로는 사료의 품질에 영향을 받는다. 다들 알고 있지만 계란이나 닭고기의 유통에 있어 조만간 품질등급제를 실시하는 것으로 준비중에 있다.

좋은 양계산물 생산은 곧 고가판매, 농가소득증대로 이어지며, 소비자에게도 땀땀이 내놓을 수 있을 것이다.

5. 품종의 특성 및 시설수준에 맞는 사양관리가 필요하다

산란계의 경우 육성기 사양관리에 따라 산란성적이 좌우된다. 즉 체중 및 성성숙의 조절이 중요하다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는 사실이다.

그러나 원리와 이유에 대해서는 정말 제대

로 알고 있는가? 대부분의 농가에서 너무 조기산란을 유도하는 경우가 많다. 이럴 경우에는 난중이 가볍고 폐사가 많아지며,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특란 이상을 선호하는 현실하에서는 산란후기의 높은 산란율을 기대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표준체중과 성성숙일령을 맞추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편, 새로 도입된 무창계사의 경우 점등이나 환기관리에 상당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으나 많은 농가를 사양관리 점검 및 지도, 또는 컨설팅한 경험에 의하면 개선할 여지가 너무도 많았었다. 농장마다 시설수준에 차이가 있어 특정한 방법이나 기술을 제시할 수가 없으므로 농장의 시설수준에 맞는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전문가와 상의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계군의 사양관리는 시설이나 기계가 하는 것이 아니고 결국은 사람이 하는 것을 명심하라.

6. 양계기술은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필자가 자주 접하는 얘기 중에 “내가 양계경력이 몇 년이다” 라는 말이 있다. 전부는 아니지만 양계경력이 많을수록 내가 최고라는 자만에 도취할 수 있다.

양계기술은 계속 발전하고 있고 또한 생물을 대상으로 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기술을 적용할 수 없다. 계속 배우는 자세로 전문가와 상의하고 관리기술을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 **양계**